

신년사



김규웅 | 본회 회장

공원을 사랑하는 동호인 여러분!

복잡다난했던 한해가 지나가고 2007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도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주요 사업 실적으로는 그간 발간이 중지되어 있던 협회지 “자연공원문화”를 복간하였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100여쪽의 계간지를 3,000여부 발간하여 행정부, 환경단체, 특히 특별(광역시·도·시·군)에 이르기까지 전 행정부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로써 자연공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파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둘째로 매 2개월 마다 국내 명소에 테마탐방을 실시한 결과 회원의 친선도모는 물론 여러 회원의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 등을 인식시키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는 대만국가공원학회를 초청하여 국내에 체류하면서 설악산 등 5개 국립공원 관리 및 우리 나라 공원 관리와 대만국가공원 관리에 관한 제도 등의 정보를 교환한 바 있고, 특히 한국자연공원협회와 대만국가공원학회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의 국립공원 방문을 포함한 인적교류 등으로 공원 관리 시스템이나 기술을 배양하는 데에 협조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작년도부터 추진하여온 “전국공원대회”를 개최하여 모든 공원을 사랑하는 동호인의 대대적인 친선도모를 시행하고, “자연공원문화” 계간지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회원간의 정보 교류를 통한 자연공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과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공원관리 참여를 도모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는 이미 양해각서에 포함된 대만국립공원 방문 등을 추진할 것이며 세계자연보존연맹(IUCN) 행사에도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되었습니다. 한 제도가 변경되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안이 발생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와 병행하여 협회의 업무 개선에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 확보에 안전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당연직 회원 등을 도입하는데도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취되기 위하여는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임원,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